

예수 부활 대축일

기 도 서 278 면

제 1 독서 : 사 도 10, 34a. 37-43

제 2 독서 : 골 로 3, 1-4

복 음 : 요 한 20, 1-9

# 순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예수 부활 대축일을 맞으며

##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리라

교구장 직무대행 김 환 철 신부

예수 부활을 거룩히 맞이하기 위하여 성무에 전념하시는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교우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예수 부활은 진정 죽었던 자들에게 새 삶을 주고 속박된 자들에게 해방과 새 희망을 주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고린전 15, 4)

예수께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부활의 기적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이름 높은 공자님이나 석가님과 다를바 없으며, 이들이 세운 종교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운 천주교와 다를바 없을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하느님의 징표요, 가톨릭의 핵심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진리를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고린전 1, 19)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예수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리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희망과 구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짓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고이 간직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이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고린전 9, 16)

바야흐로 한국 천주교는 전래 200주년을 기념하는 ‘본당 공동체의 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집계에 의하면 ‘이웃 전교의 해’에 신자 증가율이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4개 교구중 우리 교구는 하위에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한 탓을 기워잡기 위하여 각 본당별 기초공동체(반모임)를 통하여 선교하는 최상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금년 주교단 공동교서에서 밝힌 바 본당 공동체는 곧 선교하는 본당 공동체라 하였고, 선교 교령 제7항에서도 선교활동은 교회의 사명이라 밝혔습니다.

우리 교구 교리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교리교육을 시도하여 가톨릭 셀타에서 예비자 특별 교리반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선교에 뜻을 모아 평협을 중심한 본당 사도회는 물론, 각 신심단체에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적극 맡은바 소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천주교회가 하느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회 정의 및 복지사회 건설에 앞장서기에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선교사업은 하느님나라 건설에 최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교는 선택받은 하느님 백성들의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를 면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작열했던 선교의 열을 이어받아 천주교 전래 200주년사에 또 하나의 부활의 기적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리라—

### 순정이 산책

(경) + (축)

예 수 부 활

알렐루야! 알렐루야!

—천주교구 교우 일동—



금문 신앙심으로 일치를...



### 고름은

### 살이 안돼

뿌리찾기가 미국에서는 상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잡다한 인종들이 모인 가운데에 노예라는 어두운 그늘에서 살아온 조상을 가진 후손들에게는 매우 복잡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몇년전에 크게 시선을 모았던 「뿌리」라는 책자와 그것을 그린 영화가 잘 말해주고 있다. 어쨌던 뿌리는 찾아야 한다.

다래끼를 약물로 치료하려다 낫지 않아서 전문가에게 보였더니, “고름이 살되는 것은 아니니” 뚫아 터지게 하란다. 고름을 짜고 피를 보는 일이 별로 달갑지는 않더라도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잡물은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일이다. 가끔 돌팔이들이 어설플른 의술로 사람을 잡는 것도 근원적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탓이다.

대사체들과 바리사이과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없도록 당부했다. 결국 무덤은 봉인되고 경비병까지 세워졌다. 그랬어도 부활은 있었다. 대사체들과 원로들은 의논한 끝에 경비병들을 매수하기로 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각본이 짜여졌다. 그랬어도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감추지는 못했다.

감춘다고해서 드러나지 않는 일은 없다. 입시로 한 때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발라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알려져야 할 일들은 항상 정확히 알려져야 뒷말이 없다. 요즈음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들에 머리가 어지럽다. 부산 문화원 방화 사건과 사제들과의 관계, 광주사태, 김대중... 어디까지 계속 될 것인가.

아름이 있더라도 고름을 짜내야 새 살이 돋는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할 나위없는 기쁨으로 축하한다. 부활 대축일뿐 아니라, 연중 매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경축이다(전례 106). 그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신앙을 확증할 뿐더러 가장 중요한 신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이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다. 신앙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어 우리에게 안겨주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으로써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 주신”(베드전 1, 3)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선포의 핵심이다.

### 부활의 삶

토마스 머튼

부활의 삶이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는 역시 죽음같은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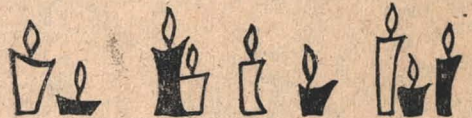
우리 삶 속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 존재함을 뜻하는 것. 역시 그와 함께 우리가 기꺼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것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는 창조적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부활과 소생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한 구세주의 잔치에 나아가자. 죽은 자의 음식물이 아닌 부활한 기도의 참 몸인 생명의 빵을 먹으러 가자. 그의 몸과 피의 잔치에서, 부활한 님을 만나는 너는 살리라! 언제까지나.

나아가자 하느님 백성들아, 우리 과월절(逾越節)의 어린 양은 제단에 바쳐지고 그의 잔치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삶으로 님과 함께 소생하게 되도다! 그는 부활하였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자기 왕국으로 들어 가신다! 알렐루야!

(「그는 다시 살아나다」 중에서)



(SS) FASHION

###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신사복·영국모드 세계적 코트의 명문  
버킹검 런던 포그

간이복·성인용 (주) 유 울리안나  
아동용·주니어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위크엔드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451



코오롱 맨스스타  
호성 맨하탄

### 전주 특약점

바바리·콤비·잠바·T  
셔츠·남방·사파리·바  
지·맨하탄 Y셔츠·넥  
타이 ★국민카드 가맹점  
전화 ④ 4561  
김돈중(아드리아노)

리틀포인트·완구·동양매  
들·양초공예 수감합니다  
보세 우산·양산 있음 니다

### 데레사 수예점

조 아나다시아  
서 데레사  
전주시 중앙동 1가48-1  
(홍빈관 앞)  
☎ ④ 5081



## □ 광주사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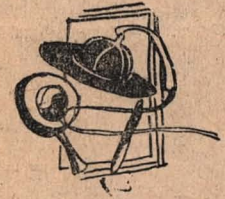
현대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汚點)을 남겼던 광주사태, 그 치절한 참상과 탄성이 아직도 생생한 요즘 교회 안팎에 뜻밖에도 새로운 회오리가 일고 있는 것 같다. 대체 또 어찌자는 것인가? 아직 그 상처 그 괴팍한 응어리가 한(恨) 되어 남아 있는데...

요며칠사이 모 수사기관과 매스컴들은 마치 교회가 큰 범범이나 행한 것처럼 야단법석들이다. 더구나 내용도 밝혀지 않은채 "악랄한 내용"의 유인물 운운하며 신부들과 교회의 무모함이라도 탓하는 듯한 무책임한 언사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런 기관에서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이나 제대로 공개를 하고, 광주 시민들의 증언과 심판 등 사실대로 보도 한번 했던가? 그때의 진상은 정작 아무도 밝혀지 못했고, 소위 식자(識者)들조차 울며 섰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이제라도 좋다. 교회와 신부들을 탓하기 전에 그 진상들을 다시 규명하자.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불의와 그 잔악함을 규탄하기 위해, 또 힘없는 선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아픔을 각오했는가를 밝혀보자. 우리는 끝없이 왜곡 보도됐던 「유신체제」의 부정과 교회의 정의투쟁을 이미 증명하지 않았는가. 불의(不義)는 근본적으로 가리고 추방해야 한다. 이 민족의 참다운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한마디 더 부연한다. 아무리 통제받는 언론이라지만 문제의 핵심과 근본 원인, 배경 등을 거두절미하고 무작정 일방보도하는 비리(非理)에 또 한번 우리는 「제도언론」의 쓸쓸함을 되새는다. 지성과 양심이 또다시 마비되고 있음을 깊이 통감한다. 엄정났던 그 사건, 광주의 살상과 대(大)인권침해에는 모두다 입다물고 눈감으며, 그 연유된 일탈 사건과 뒤끝만을 책하는가? 과연 죄인은 누구인가???

〈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 □ 한 촌부(村夫)의 묘비 제막

지난 3월 31일 김계군 월촌면 봉월리공소 조그만 언덕에서, 농촌의 정의를 부르짖다 불의의 사고로 먼저 간 김 경식(베드로)의 1주기를 맞아 가족(부인, 1남 2녀)과 전국에서 모인 농민회원 및 본당교우들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도미사와 묘비 제막식이 있었다.

농민회 봉월 분회장이었던 작은 '농민운동가' 고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모두 그 뜻을 두고 두고 기리게 했다.

「우리들의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자던 형제여!

마흔 하나 한창 나이에 할일 많은 이 나라 농촌을 떠나셨구려.

발뺌을 농촌 현장에서 의롭게 살려 했던 당신의 뜻을 기리며 가신지 일년만에 이 비를 세우오。」

천 구백 팔십 이년 삼월 삼십 일일

한국 가톨릭 농민회

## 요심이(453) 김병오

신문보도내용을부분적으로 경우에 따라 믿지않는 사람손들어오

예수부활을 믿지 않는사람손들어봐요

예수부활을 믿지 않는사람손들어봐요

예수부활을 믿지 않는사람손들어봐요

## 의료호과의 선구자 신비 식품 토롱

(W. B. S.) 왜관수도원 제조 (토롱정, 엑기스, 캡셀, 분말) ※ 토 롱 탕

- 남원영업소: 동문사거리— (50M) 법원(전화 2479)
- 오수영업소: 버스터미널— (50M) 전주(전화 457)

※ 시.읍(각 영업소 모집) 교우분 환영

◎ 전북총판—전주(구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⑤5587 황 수 산 나

### □ 개업

“교우님들의 사업에 「節稅」로서 봉사코저 합니다

세무사 이환영 사무소 <가톨릭센터 221·222호실> 전화 ③ 6604

“교우님들에게는 언제든지 세무에 대하여 무료 상담하여 드립니다. 세무사 이환영(아오스딩)

### (축)

## 부 활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중앙일보 기린지국 지국장 김아가비도(영욱)

문교부가 인가한 국내 유일의 연구, 보급기관!

## (중) 속 독 법 (설)

대상: 초·중·고·대·일반·성경 속독반  
4월 6일 개강 지회 운영자, 강사요원 상담요함  
사단 법인 한국 독서 능력 개발 연구회  
전주: 조윤희(베드로) ⑤ 5587  
군산: 이길영(요한) ② 7742



1. 휘폴라레 하루 마리아 빨리: 일시-18일 오전 9시, 장소-전주 성심여고 강당  
대상-남·여 고등학생·대학생 및 일반, 참가비-1,000원(점심 및 간식 제공)  
※ 토요일 모임(원하는 분 모두, 고등학생 이상), 일시-17일(토) 4시30분, 장소-중앙성당
2. 협회 상임임원회 및 임원회: 일시-4월 17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3. 제 4차 레지오 연수회: 일시-4월 24일 3시~4시 센터에서, 대상-꼬미씨을 산하 전단원 참석 바람
4. 김 종택(요셉) 신부님 회갑: 일시-4월 15일
5. 군중임대 신부님 송별회: 김 회남·유 영도 신부님 4월 17일 입대, 4월 12일 12시 가톨릭센터 식당에서  
회비-5,000원, 뜻이 있으신 분 많은 참석 바람

**(중앙)** 전화 ②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환  
사도 회장 박관문

- ※성경읽기: 사도행전 11장~13장, 요한 10장~14장
1. 박인호 신부님 출국: 4월 15일~5월30일 휘폴라레 운동 참석(이탈리아 로마야노)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푸리아 월례회: 오후 2시 강당
  3. 복자반 영세자 모임: 21일 예비모임
  4. 주일학교 성지순례: 서울 양화진(철두산)성당, 어린이 대공원, 과학관, 해설 5월5일, 회비-어린이3,000원 자모-6,000원, 4월 11일까지 마감
  5. 축! 영세: 영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중철(요셉) 외 65명
  6. 고등학생회에서 축성한 부활계란을 판매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686,870원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성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분당 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 빠짐없는 참석바람
2. 금주의 성경읽기: 요한복음 전체
3. 공소들기 운동: 지난주에 가져가신 신입서를 금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세요
4.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5. 학생 예비자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6. 남자 예비자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후
7. 쟈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8.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9. 성가정회 모임: 매주(수) 저녁 미사후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양  
사도 회장 양상열

1. 반석회 월례회의
  2. 애령회 월례회의
  3. 부활 축하대회 Pr. 별로 출전
  4. 사단장병과 친선 배구대회: 많은 응원과 성원바람
  5. 아직 성사 못보신분은 매 미사 전후에 성사보시기 바랍니다
  6. 부활 행사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 4월 19일부터 반장님 구역장님을 위한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좌신부님께 신청 사도회 부담(15,000원). 개인 부담(5,000원)
  8. 주일학교에 어린이들 많이 보내주세요  
성당에서 교사님들이 기다립니다 2시~교리, 3시~미사
- 지난주 봉헌금: 130,501원 교무금: 403,9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임시회의: 오늘 오후 3시
  2. 성우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축! 회갑: 15일 목요일(분당 신부님) 많은 기도 와 협조 바랍니다 축하미사-오후2시, 축하식-오후3시, 축하연-오후4시
  4. 주일학교: 매주일 오후2시, 어린이 미사 오후 3시
  5. 중·고등학생회 미사: 매주일 오전9시, 교리-미사후
  6. 축! 혼인 미사: 신랑-이복근(요셉), 신부-김종민 17일(토) 12시, 신랑-김병호, 신부-노제실(가타리나) 17일(토) 오후2시
  7. 봉헌금미수 완납바람
  8. 차주전례: 해설-김재석, 독서-① 유기순 ② 은희영
- 지난주 봉헌금: 372,170원  
사람과 나눔의 헌금: 66,310원

**(서학동)** 전화 ②276번 주임 신부 김별환  
사도 회장 활인구

1. 축! 부활: 가정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2. 부활절 봉헌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꽃143,700원, 봉헌종-(익명)78,000원, 무덤제대-(익명)105,000원  
부활초-(김달래나)20,000원
  3. 반장회: 공식 미사후
  4. 레지오 마리에 성지순례: (5월 1일)미리내 신청바람
  5.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정형석 ② 신영창
- 지난주 봉헌금: 277,870원 교무금: 1,141,000원

**(순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②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오늘 예수부활 대축일: 대과공일
  2. 구세주의 모후 푸리아 월례회: 4월 11일 오후 2시  
장소-구 유치원 교실
  3. 성모회 월례회: 4월 18일 공식 미사후
  4. 성 프란치스코 영화상영: 4월 23일 밤 7시 30분  
장소-구 유치원 교실
  5.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주일 공식 미사후 수요일 오후 2시30분 밤8시
  6. 차주전례담당: 해설-이철수, 독서-이종욱, 송용호 기도-정주복
  7. 미사참례자 안내: 제 3조-황화순·유몽례·오귀래 오옥동·유희자·반경자
- 지난주 봉헌금: 454,640원

**(전동)** 전화 사부 ③222번 주임 신부 김범열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송두

1. 자모회·장우회: 공식 미사후
  2. 짧은이 성지순례: 4월 25일-철두산미리내, 접수증일
  3. 성소주일: 5월2일-중·고생광주 대건신학교 방문,
  4. 성화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5. 꼬미씨움: 다음주 오후 2시
  6. 신축기금 신일명단: 신일군(50만원), 안득수(30만원) 김복윤·김중화·이영배(10만원), 김영환·이여숙·김종순·배복례·은종량(5만원), 조윤희·김업배(3만원), 김복순(3만 6천원), 홍철호·이연필·김정희·양경배·이혜숙·김현순·이복자·백복주·최병남·서정옥(각 2만원), 전인덕·이창수·이혜숙·문윤자·서정걸·장길자·유복성·권재금·박혜자·박인규·이옥자(각 1만원), 채종숙·홍재준·차수연·한옥희·김화실(각 5천원)
  7. 다음주 전례 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이현재·김창선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안득수·신일군  
저녁미사: 해설-이주철, 독서-변혜석·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600,910원 특별헌금: 61,60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활희상

1. 지난주 64명 영세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각 레지오 단원들 수고하셨습니다
  2. 오늘 오후2시에 푸리아 회합있었습니다 빠르게더운 간부들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3. 오늘은 대축일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헌옷을 수집해서 경쟁원에 보냈습니다(다음일까지)
  4. 선교분과 위원회: 다음주에 있으니 각 빠르게더움에서 몇 명씩 영세자를 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5. 미사시간 변경안내: 평일미사-월요일 아침 6시, 평일 미사-목요일 6시, 저녁미사-화요일8시, 저녁미사-목요일8시, 저녁미사-토요일8시, 어머니미사-금요일10시
- 지난주 봉헌금: 218,810원 교무금: 293,190원



天主教朝鮮敎區設定 150週年記念映画

# 招待받은 사람들



“너희들은 우리 교우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라. 너희들이 하는 짓이 격심할수록 우리들은 더욱 큰 효과를 거둔다. 참으로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교인들의 씨이니라.”

떼르뫼리아누스 성인의 말씀

# 초대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김 수 환추기경

교구설정 150주년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의 하나로 본 교구에서는 동아홍행 주식회사의 폭넓은 배려와 협조로 순교영화 「초대받은 사람들」들을 제작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년 전 사람들의 마음과 그 때의 사회적 배경을 오늘 되새겨 봄은 오늘의 나를 찾고 내일의 나를 설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진리에 대한 염원과 신념! 진리수호를 위한 결의, 진리를 지켜온 의지! 훌륭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으로만 삼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영화 「초대받은 사람들」속엔 인간군상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천민, 상인, 양반, 학자, 정치가, 임금 등. 그들의 모습에서 나를 찾고 그들의 신앙에서 내 믿음을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교나 순교는 그시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배교와 순교가 계속 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 전 교회에 부탁드립니다.

적극적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영화를 권합니다.

\* 우리는 순교선열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 영화로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갈 진리와 양심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오기선 神父(敎會史家)

\*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정말 가슴벅잡니다. 우리는 긴 수난의 영예로움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화를 전 교우들에게 권합니다.

류홍렬 博士(敎會史家)

\* 1886년 병인박해의 100여년간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결코 잊지않고 있습니다.

최상선(平協會長)

\* 빛, 성스러운 빛, 그 빛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빛이요 「초대받은 사람들」 머리위에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황우경 修女(복자수녀회총장)

절 취 선

## 敎友優待券

영화명 : 초대받은 사람들

장 소 : 전주 중앙극장

일 시 : 1982년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10일간)

본 우대권을 극장 매표구에 제시하시면 900원으로 할인 우대합니다.